

지리산 둘레길 여정 1

글. 심형규 CJB 청주방송 기술국 차장

지리산 둘레길 시작에 앞서

지리산 둘레길은 민족의 영산(靈山) 지리산을 중심으로 3개 도(전북, 경북, 전남)로 5개 시군(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의 21개 읍면 120여 개 마을을 연결하는 285km의 장거리가 특징입니다. 지리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 마을길 등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리산 화대종주(화엄사~노고단 : 백릿길), 태극종주(인월~주 능선~산청 : 2백 리길), 주 능선 종주, 계곡 등을 종종 해왔지만 누가 ‘정말 지리산을 잘 아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잘 모른다’고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산행하기 바빠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둘레길에 그리 관심이 없다가 2021년 9월 초 TV 예능에서 잠시 소개되었습니다. 시청하고 난 후, 그 주중에 딸과

YES24 중고 서점에 들렀고,.. 우연찮게(?) 지리산 둘레길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구입하고 바로 1주일 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코로나19로 움추린 몸을 기지개를 활짝 펴고 가봅니다.

산행기에 앞서 3차로 나누어 지리산 둘레길을 정리합니다. 스마트폰 GPS로 실제 거리로 환산한 거리를 정리하면, 대략 310km로 나옵니다. 이제 걸었던 지리산 둘레길을 옮겨 적어 봅니다.

1차 지리산 둘레길

- 나만의 산티아고 길은 막걸리 순례길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에서 스페인의 聖요한이 잠들어 있는 성당까지의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합니다. 이 순례길을 가지는 못하지만, ‘생명과 평화’가 공존하는 지리산 둘레

1차 지리산 둘레길

2021. 09. 26(일) ~ 09. 28(화) :
83km (남원 주천 ~ 산청 성심원)

2차 지리산 둘레길

2021. 10. 11(월) ~ 10. 14(목) :
173km (산청 성심원 ~ 하동 가탄)

3차 지리산 둘레길

2021. 10. 21(목) ~ 10. 22(금) :
65km (하동 가탄 ~ 남원 주천)



지리산 둘레길 지도 / 출처 : www.jirisantour.com



스탬프 포켓북과 둘레길 전체 지도

길을 저만의 산티라고 순례길로 생각하고 걸어 봅니다.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면서 다시 고개로 넘어가는 둘레길은 어느 방향, 어느 지점에서 시도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원형으로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벽수(장승목)에 빨간색 화살표(시계 방향), 검은색 화살표(반시계 방향)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돌기 위해 빨간색 화살표(시계 방향)로 돕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가는 곳곳마다 숙박집과 이정표가 잘 되어있어 크게 망설임 없이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남원 주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꼭 둘레길 탐방소에 들러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지리산 둘레길 지도, 스탬프 책자를 구매해서 구간마다 스탬프 찍기를 추천합니다. 스탬프 찍는 재미가 은근히 있습니다.

산 좀 타고, 지도정치도 할 줄 안다고 은근히 자부했지만, 남원 주천 1구간 탐방소 직원분에게 설명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혼자 하는 둘레길이고, 충북 청주에서 오기가 만만치 않아 남들과 다르게 즐기치게 걷습니다.(비강추)



벽수 : 장승목(길 안내)



장승목의 거리 안내



벽수 상징

1차 첫째 날(9/26 맑음) : 1구간(남원 주천 - 운봉) ~ 2구간(운봉 - 인월) - 23.94km

충북 청주에서 조치원역까지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부터 기차로 남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원역에서 지리산 둘레길 첫 시작인 남원 주천 안내소까지 시내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1구간 남원 주천 안내소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 정오경부터 뚜벅뚜벅 시작해봅니다. 잘 정리된 나무표시가 길을 안내 해줍니다. 제1구간 중간의 운봉 느티나무집에서 운봉 막걸리 1병을 시작으로 쉴 때마다 한 모금씩 마셨네요. 은근히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알코올을 중독자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맥주 1캔도 간신히 먹는데 이상하게 이번 둘레길에서는 막걸리가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이곳 남원은 벌써 황금 들판에 벼 베기가 한창입니다. 남쪽 기후여서 그런가 봅니다. 왜 남원(南原)인지 이제야 알게 되네요. 제3구간 시작점인 인월읍에 밤 8시경에 도착해서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늘 피로함을 씻습니다.



정자나무 쉼터에서



남원 운봉의 황금 들판

1차 둘째 날(9/27 맑음) : 3구간(인월 - 금계) ~ 4구간(금계 - 동강) - 33.52km

아침 일찍 일어나 인근 기사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든든히 마치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제방길을 걸으며 하천에서



금계 구간에 바라본 지리산 주 능선

노닐고 있는 수달들을 발견합니다. 동물원에서 봤지, 이렇게 대놓고 자유롭게 노닐고 있는 수달은 처음 보네요. 걷기에 바빠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수달을 보니 오늘 하루 운수 대통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해봅니다.

남원시 인월에서 경남 함양군 금계 구간은 산 밤이 참 많습니다. 추석을 지나서 그런지 길가에 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산 밤 주워 막걸리 안주로 먹으니 요기로 든든합니다. 특히 이 금계 구간은 지리산 천왕봉 주 능선이 보이는 멋진 구간인데, 조금은 아쉽네요. 풍광이 너무 좋다 보니 민박집 포함, 잘 지은 전원주택들이 즐비하게 서 있어 시골 정취 맛이 없습니다. 물론 저만의 편견이었지만요. 그래도 저 멀리 보이는 지리산이 정답입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길의 안전을 위해 야간장비로 갖추고 4구간 종착점을 밤 9시에서 나 도착합니다. 조금은 무리이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구간마다 갈 수 없어 무리를 해봅니다. 시멘트 포장길을 걷다 보니 발바닥에 물집이 서서히 잡힙니다.



산(山) 밤과 막걸리



함양 이순신 막걸리

1차 셋째 날(9/28 맑음) : 5구간(동강 - 수철) ~ 6구간(수철 - 성심원) - 25.42km

다시 함양군 이순신 막걸리 한 병을 사서 전날에 미리 까둔 산 밤을 챙기고 길을 걷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연과 추모비에 잠시 목례를 합니다. 함양군 동강에서 산청군 수철의 산 고개를 넘습니다. 계곡 물소리 들으며 오고 가는 사람 없이 뚜벅뚜벅 호흡 조절하며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 힘들지 않게 도착해서 산청의 지인 지리산 달팽이 님에게 전화 안부를 합니다. 최종 목적지인 산청 성심원에서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산청을 넘어오니, 이쪽 산 밤은 크네요. 줍다 보니 양 주머니에 가득합니다.

발바닥에 통증은 오지만 더 걷지 못 할까라는 두려움에 신발 벗기를 거부하고 그냥 걷습니다. 성심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지리산 달팽이 님에게 전화가 오네요. 신기(?)에 놀랍니다. 즐거운 만나 저녁 식사로 대접해주신 한우와 산청 막걸리로 다시 생기를 얻고,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후 선물로 로스팅 커피 원두를 갖고 왔지요.

저녁을 먹고 진주로 와서 하룻밤 자고, 청주로 가는 첫차로 부지런히 충북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녁 TV 주조 정실 근무입니다. 피로함을 벗고 안전한 방송을 위해 정신을 차립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산티아고 순례길로 생각하며 많은 것을 묵상하려 걸으려 했는데, 걸었던 200리 길은 막걸리 순례길이 돼버렸네요. (운봉 막걸리 - 인월 막걸리 - 동강 막걸리 - 산청 막걸리)

“가을 하늘 벗 삼아
바람이 불러 준 대로 산천을 휘돌아 걸다 보면
마을마다 만나는 정겨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나의 산티아고 길은 계속 진행됩니다.”



야간 산행 준비



고동제에서 산밤과 막걸리



산청 성심원

지리산 둘레길 2차 여정

- 산행 삼우(三友 비, 바람, 안개)를 만난 날

지리산 둘레길을 마치기 위해 올해 남아 있는 연차를 소진합니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부터 쉴 틈 없이 날씨 정보를 봅니다. 금주 안에 비가 내리면 걷기 시작하는 그다음 주 첫날은 날씨가 맑겠지요. 이런 야무진 상상을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린다는 비는 오지 않고, 출발하는 첫날에 비가 온다고 하니 조금 피가 납니다. 그래도 제가 가야 할 길이기엔 그냥 받아드릴 수밖에요. 이번 2차 여정을 위해 새로 배낭을 구입하고, 우비도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2차 첫째 날 (10/11 비) : 7구간 윤리마을 ~ 8구간 덕산면

- 30km

일요일 경남 진주에서 친구 만나서 하룻밤 자고, 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새벽 6시 첫차로 중산리행 버스에 승차해서 중간 정류장 산청 윤리에서 내렸습니다. 택시로 산청 성심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른 아침 날씨는 흐립니다. 이곳 7구간은 성심원에서 아침제로 올라가 웅석봉을 넘어가야 합니다. 30분 정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한 다음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짐을 챙겨왔지만 또다시 배낭 무게가 12kg이 넘으니 급한 오르막에 지칩니다. 고갯마루는 안보이고, 아~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금세라도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지리산 웅석봉

너무나도 만나기 싫은 산행 삼우(三友) - 비, 안개,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나마 좋은 것은 바람은 없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웅석봉을 넘어 7구간 도착지인 윤리마을에 도착해 정자에서 진주에서 산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평소 술을 입에 잘 안 대는데, 돌레길에서는 하루 한 개씩 막걸리를 마시네요. 막걸리 취기로 비로 추웠던 몸을 잠시나마 데웠습니다. 점심 휴식을 짧게나마 취합니다. 힘을 내야지요. 그래야 힘이 붙습니다.

다시 8구간을 시작을 위해 비 내리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윤정마을에서 비를 맞으며 길을 1시간 헤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백운계곡을 넘었지만, 계곡의 정취는 비로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운동 폭포를 지나는 중 남명조식 선생님의 한시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시를 마음에 새기고 있자 하니 덕산면의 남명조식 선생님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백운동에 비만 안 왔으면 9구간까지 가려고 했지만 걸음은 늦어지고 걷기가 싫어집니다. 여기 8구간인 산청 덕산면 읍내에서 멈춥니다.



지리산 웅석봉 헬기장



남명 기념관



저녁식사



피로를 풀어주는
막걸리 한잔

백운동에 놀며(遊白雲洞)

- 남명(南冥) 조식(曹植)

천하영웅소가수(天下英雄所可羞)

천하 영웅들이 부끄러워하는 바는

일생근력재봉유(一生筋力在封留)

일생의 공이 유땅에만 봉해진 것 때문

청산무근춘풍면(靑山無根春風面)

가없는 푸른 산에 봄바람이 부는데

서벌동정정말수(西伐東征定未收)

서쪽을 치고 동쪽을 쳐도 평정하지 못하네



여기서 남명 기념관을 더 지나 모텔에 숙소를 잡습니다. 온몸과 신발은 다 젖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숙소에서 20분 동안 누웠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몸을 씻고 신발과 젖은 옷들을 말렸습니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2차 둘째 날(10/12 비) : 9구간 위태마을 ~ 10구간 하동호 - 26.27km

비가 그만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차라리 오늘은 한 구간 갈지라도 비 멈춘 뒤에 가고 싶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진리이지요. 덕산면에서 돼지국밥을 한 그릇



비개인 하동호



버스 정류장에서 휴식



테이프로 응급처치



민박집에서 하룻밤

먹고, 다시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 오는데 왜 가냐고 핀잔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유점마을에 도착하니 지리산 둘레길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내소 소장님께 커피 한잔을 얻어 마시고, 잡담을 한동안 나눕니다. 그래도 비는 내립니다. 또다시 걷습니다. 중태재에서의 지나온 길이 예쁘네요.

9구간인 위태마을에 도착하니 발꿈치에 통증이 옵니다. 마을 버스 정류소에서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전기절연 테이프도 칭칭 감습니다. 신발 밑창에는 응급처치로 다이소에서 구매한 여성 위생품을 깔았습니다. 간단히 간식을 하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오후 늦게 넘어서야 비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저 멀리 하동호가 보이면서 어두움이 밀려옵니다. 8구간인 하동호를 조금 지나 평점마을 민박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또다시 온갖 짐을 다 말리고 통통 부은 발을 달래줍니다. 막걸리 몇 사발을 마시고 피곤한 몸을 달래줍니다. 다음날을 위해 꼭 잠이 듭니다. ☞

지리산 둘레길의 남은 여정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